

#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와 그에 대한 평가

김길남

##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다.

실학사상가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여러가지 경제개혁사상을 제기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43페이지)

실학사상가들의 경제사상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발생발전과 근대경제학설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할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쵸아경제사상의 맹아는 17~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실학자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그후 개화사상가들과 애국문화운동가들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과정과 경제사상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의 필연적산물이었다.

그러나 지난날 대국주의사가들과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사대주의사가들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사가 심히 외곡되었던탓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실학사상가들의 경제사상을 비롯하여 부르쵸아경제사상의 발생발전에 대한 문제는 응당한 위치에서 평가취급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그 진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실학사상에 대한 평가에서 계급적원칙과 함께 력사주의적원칙을 옳게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실학사상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실학사상가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으며 이 과정에 그들은 토지제도의 개혁, 재화(물질적부)의 증대, 상업의 발전, 조세제도의 개정 등 여러가지 경제개혁사상을 제기하였다.

실학파의 주요대표자들로서는 류형원(호는 반계, 1622—1673), 리익(호는 성호, 1681—1763), 류수원(호는 룡암, 1694—1755), 홍대용(호는 담헌, 1731—1783), 박지원(호는 연암, 1737—1805), 박제가(호는 초정, 1750—1805), 정약용(호는 다산, 1762—1836), 리규경(호는 오주, 1788—1863), 최한기(호는 동강, 1803—1879) 등을 들수 있다.

## 2. 본 론

### 2.1.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

실학사상가들의 경제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상업발전에 대한 견해이다.

적지 않은 실학사상가들은 사, 농, 공, 상으로 이루어지는 4민을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봉건적신분질서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상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을 제기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나라의 봉건적락후를 극복하려는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상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국내상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할것을 주장하였다.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상업을 천시하고 상업억제정책에 매달리는 봉건지배계급을 비판하면서 상업을 사회적분업의 하나로 중시한것이다.

박제가를 비롯한 실학사상가들은 나라가 락후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빈곤한것은 생산이 발전하지 못하고 《재화가 류통되지 못하는데 있다.》(《북학의》 시정)고 하였다.

박제는 상업을 《말업》이라고 하여 천시하며 억제하는 봉건통치자들의 중농억말정책을 비판하면서 봉건통치자들은 《시장들이 왕성한것을 처음 보고는 말하기를 전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리익만을 숭상한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북학의》 시정)라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을 《말업》이라고 하여 천시하던 낡은 봉건적관념에서 벗어나 그것을 사회적분업의 하나로 중시하였다.

박제는 《상인은 4민의 하나이며 상업으로서 사, 농, 공 3자의 모든 유무를 상통시키는것이니 그들의 일은 어민이 어업으로서, 협민이 벌목으로서 생업을 삼는것과 같은것이다. 지금 만약 모든 백성이 농사에만 종사한다면 4민이 모두 어려워질따름이다.》(《북학의》 시정)라고 하였다.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상업발전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주장한것이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발전의 의의와 역할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상업을 리용후생의 중요한 방도로 보면서 상업은 무용지물을 유용지물로 전화시키므로써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박제는 《령동은 풀이 나되 소금이 없고 관서는 철이 나되 감, 굴이 없으며 북도는 삼은 잘되나 면포가 귀하며 산골에서는 팔이 싸고 바다가에서는 젓갈이 많고 평남 옛절에서는 종이가 나며 청산, 보은은 대추밭이 많고 강화는 한강어구에 있어 감이 많다.》(《북학의》 시정)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들은 류통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널리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상품이 전국적으로 서로 류통되지 못하는 폐단을 보면서 생산물은 그 생산지의 좁은 범위안에서만 소비되기때문에 생활은 넉넉해지지 못하고 나라는 가난해질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실학사상가들은 《반드시 원방과 물건을 상통한 후

에야 재화가 풍부해질것이며 여러가지 일용품이 생길것이다.》(《북학의》 하, 통강남절강상박의)라고 하면서 상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주장하였다.

상업을 자유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새로운 견해는 량반들도 장사를 할수 있다는 주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이 농사를 해친다고 하는 봉건통치배들의 립장과는 반대로 농사를 해치는것은 놀고먹는 량반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량반들이 놀고먹지 말고 상업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놀고먹는 량반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선비가 반드시 농사로 돌아가지 못할자가 있는데 이들은 어찌하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직업을 바꿔서 장공인이나 상인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여유당전서》 1집 11권 5페이지)라고 하였다.

산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안들을 제기한것이다.

실학사상가들은 우선 상업을 자유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정치의 중요성을 이모저모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최한기는 《백가지 공업이 기계, 기구들을 구비하여 그것을 써서 편리하게 하며 유무상통하게 하여 백성이 쓰는것을 유족하게 함을 사업으로 하는 공상업의 발전에서 나라의 정치가 표현된다.》고 하면서 《선비, 농민, 장공인의 일은 상인에 의거하여 류통되는것이니 만약 상업이 잘못 된다면 곡식과 천이 고루 류통되지 못한다. 정치가 문란한것은 우선 상인에게서 표현되며 나라와 백성의 규제와 법식의 갱생도 역시 상인에게서 볼수 있다.》(《인정》 11권 교인, 상고)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발전의 실패와 상인에 대한 태도에서 정치의 문란상을 볼수 있다고 하면서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옳은 정치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또한 상업에 대한 봉건관리들의 수탈행위와 과중한 세금부담을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시장의 세무감독을 반드시 불량한 군교에게 맡기기때문에 물품을 강탈하고 쌀을 빼앗는것과 같은 수탈행위가 있다.》고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봉건관리들의 수탈행위를 엄격히 단속할것을 주장하였다. (《여유당전서》 5집 21권 34페이지) 그리고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것은 상업을 적극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또한 상품류통이 락후한 원인을 지방적인 폐쇄성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데서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시장을 널리 열고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를 사용하며 물길을 리용하여 배로 물건을 운반할것을 주장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또한 국내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상품가격을 균등화하고 상품규격을 통일시킬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박제가는 원산에서의 해산물가격과 서울에서의 가격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심한것을 제기한 다음 전국의 《물가의 높고낮음》을 평준시킬것을 주장하였으며(《북학의》 내편 차) 또한 벽돌을 레로 들면서 상품규격을 통일시킬것을 구상하였다.(《북학의》 내편 웅와) 그리고 정약용은 국내시장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도량형기의 통일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물건값의 차이를 해결할 시도를 표명하였다.

산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주장이다.

그들은 당시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고있던 세계의 추세를 간파하고 우리 나라와 같이

평야가 적고 백성들의 생활이 빈곤한 형편에서 빨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박제가는 《우리 나라는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가난하므로 농사를 힘써 짓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며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는 등 전국의 유리한 환경을 모조리 리용한다 하더라도 부족될 념려가 있다. 또 반드시 먼 지방과 문화를 류통한 후에야 재화가 풍부해질 것이며 제반 용도에 쓸 물건들이 생길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라와 나라사이에 있는것과 없는것을 교역하는것은 천하의 통의》라고 말하였다.((《북학의》 하, 룡강남절강상박의)

실학사상가들은 더 나아가서 대외무역을 경제적리득뿐만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정세를 관찰하고 시야를 넓혀감으로써 개화를 이룩하는 리득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박제가는 《이렇게 되면 그 기술을 배우고 그 풍속을 관찰하게 되어 우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견문을 넓혀 천하가 크다는것과 우물안의 개구리로서의 수치를 알게 한다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유익할것이니 어찌 유독 교역에서 얻는 리득에만 그칠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북학의》 하, 룡강남절강상박의)

실학사상가들은 나라를 혁신하려면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쇄국정책을 비판하고 개국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리규경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여 유무상조하는것이 무슨 해가 있겠는가. ...홀로 우리 나라만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 전쟁을 야기시킬 틈을 줄가봐 감히 장사할념을 내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남달리 빈곤한 나라로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하였다.((《오주연문장전산고》 32권 여변박개시변증설)

실학사상가들은 외국과의 통상때문에 당하는 우려보다는 나라가 실력을 갖추지 못함을 우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통상을 통하여 나라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특히 세계대세가 급진적으로 전변된 조건에서 대세의 변화에 개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적극 주장하면서 그를 위한 대책안으로서 해상운수를 발전시킬것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국내상업에서는 수레와 배를 함께 사용할것을 제기하였다면 대외무역에서는 배가 훨씬 유리하며 바다길을 다니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제가는 《대개 수레 백대의 적재량이 배 한척만 못하며 수레로 육지를 천리 가는것이 배로 만리 가는것만큼도 편리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로를 제일로 친다.》((《북학의》 하, 룡강남절강상박의)라고 하였다.

배가 통상에 유리하며 따라서 배가 없이는 대외진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실학사상가들은 다른 나라의 조선기술을 배워 배를 건조할것을 제기하였다.

## 2.2.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의 진보성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의 진보성은 무엇보다먼저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상업억제정책과 고루한 유교성리학자들의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상업의 발전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보았다는데 있다.

임진조국전쟁과 두차례에 걸치는 청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겪은 조선봉건왕조는 17세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점차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국력이 심히 약화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령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권력과 치부를 위한 당쟁과 세도정치를 일삼으면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기생적수요충족에 복무하는 어용상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민간상업의 발전을 극력 억제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였다. 탐관오리들의 학정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양반과 상민사이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은 극한점에 이르러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꼬리를 물고 일어남으로써 사회정치가 혼란에 빠졌다.

봉건통치를 사상적으로 대변해나선 성리학자들은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4단7정론과 례론 등 실천과 인연이 없는 낡고 부패한 유교도덕을 설교하기 위한 공리공담과 허례허식을 일삼고 사대주의에 매달려 성리학이외의 다른 모든 학문과 사상조류를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실학자들은 봉건사회분해기의 이러한 사회적현실과 추세를 민감하게 간파하고 봉건통치배들의 중농억말정책과 반동적성리학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변법사상에 기초하여 상업의 발전에 관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실학자들의 실사구시, 리용후생에 대한 견해는 인식론적견지에서 보면 인식의 목적,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사회개혁의 립장에서 보면 부국유민, 유민익국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상업을 천시하고 억제한 봉건통치자들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비판적견해는 봉건국가의 그릇된 상업정책과 대치되는 새로운 사상이었다.

당시 봉건통치자들은 중상주의적으로 나가는 시대적추세와 달리 아직도 계속 주자성리학적교리에 기초하여 상인을 천시하고 상업의 국가어용적성격을 강화하며 쇄국정책으로 대외무역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공업에 대한 투자의 길을 막는 등 반동적경제정책을 계속 추구하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전통적인 신분등급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4민의 질서를 고수하면서 상인이 부유해지고 세력을 확장하는것을 봉건적질서의 파괴행위로 보면서 상업발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봉건정부의 반동적상업정책으로 인하여 상업발전의 자유로운 길은 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당시의 조건에서 상인도 4민의 하나로 보고 상업을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분업의 하나로 보면서 상업이 없이는 백성들이 더 빈곤해질것이라는 실학사상가들의 주장은 그들이 상업에 대한 리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서방자본주의침략의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의 운명을 우려하는 진보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였으며 통상과 개국을 통하여 외국의 우수한것들을 받아들이고 세계대세에 따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생각한 진보적인것이였다.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국론에는 봉건통치배들의 쇄국정책을 비판하고 세계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락후성을 깨닫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문물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있다.

산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의 진보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부르쥬아개혁사상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발생발전은 상품화폐관계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상품화폐관계가 발생발전하는 과정에 봉건사회의 지배적인 자연경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는것은 경제발전의 일반적합법직성이다.

부르조아경제사상은 그 발생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을 적극적으로 조장발전시킬데 대한 견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를 분석하는것은 그들의 경제사상의 부르조아적성격을 해명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17세기이후 상품화폐관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광업과 요업, 제지업 등 민간수공업부문과 인삼과 같은 상업적농업생산분야에서 자본주의적경제관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은 분해되어가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신분적예속관계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상업에 대한 억제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를 개방하고 상업을 중시하는 시대적요구에 따라 해외통상을 포함한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주장하는 실학사상가들의 홍상론은 자본주의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진보적인 립장의 표현이었다고 볼수 있다.

실학사상가들은 당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고있던 신흥상공업자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대의 선각자들이었다고 볼수 있다.

실학사상가들은 비록 량반가정에서 출생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대다수 심히 부패타락한 봉건제도에 불만을 품고 량반관리로서의 벼슬을 배척한 사람들이였다. 실학사상가들이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고 사, 농, 공, 상으로 이루어지는 4민을 세습적으로 계승되는 봉건적신분질서로 보지 않고 그들의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지어 상공업자들과 그들의 재물을 중시한것은 신흥상공업자들의 리해관계의 대변자로 나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상업발전에 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의 부르조아적성격은 교통운수의 발전과 상품가격을 평준하고 도량형기의 개량을 상업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제기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교통운수의 발전은 자본주의발전의 중요한 전제이며 그에 의하여 근대문명과 산업발전이 촉진된다.

교통운수의 발전이 상업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재화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당시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던 상품류통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국내시장을 널리 발전시킬데 대한 부르조아적요구를 미숙하게나마 파악한 진보적인 관점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가격의 균등화와 도량형기의 통일은 민족시장의 형성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따라서 상품류통이 발전하고 화폐관계가 확대되어가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가격을 평준하고 도량형기들을 통일할데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가 근대경제학에 점차 접근해가고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당시의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는 진보적인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 2.3.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의 제한성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과의 경제사상은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사상리론적미숙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첫째로, 봉건제도자체를 그대로 인정한 기초우에서 상업의 발전을 주장하였다는데

있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의 발전을 억제한 봉건통치배들의 정책과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그 해결방도를 《어진 임금》, 《선량한 관리》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봉건왕조를 세우는데서 찾았다.

실학사상가들은 결코 봉건왕권을 부정하거나 관료체제일반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건국왕을 초계급적인 존재로 내세웠으며 다만 통치배들의 지나친 전횡만을 폭로하는데 그쳤다. 봉건적인 질서를 절대화하고 상업을 《말업》으로 천시하는것이 봉건국가의 상업정책의 본질이라는것을 아직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로부터 실학사상가들은 봉건국가의 정책에 기대를 걸었으며 여기에 그들의 계급적제한성과 견해의 약점이 있다.

둘째로, 실학사상가들이 저들의 계급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상업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기까지 하였다는데 있다.

실학사상가들은 신분적으로 양반출신이었던것으로 하여 모든 경제개혁안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정하게 대변하는 립장에서 제기하였다.

그들은 중농주의적립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로부터 상공업의 지나친 확대발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류형원은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화폐유통을 촉진시킬것을 주장하면서도 《수공업과 상업》을 하는자가 너무 많으면 농업에 해가 될것》(《반계수록》 1권 전제 상)을 우려하였으며 리익은 류형원처럼 상업과 수공업의 일정한 발전은 필요한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를 리상화하고 지어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안까지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사상가들이 봉건적상업정책을 일정하게 비판하고 상업을 발전시킬것을 주장한것은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지향한 진보적인 견해였다고 볼수 있다.

### 3. 결 론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문제는 실학자들의 견해와 근대시기에 부르쥬아경제사상에서 주류의 하나를 이루었던 중상주의와의 호상관계를 바로 해명하는것이다.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그것이 자본주의적경제관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출현하였으며 상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을 제기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이 나라의 부강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는 점에서 근대시기 서유럽나라들에서 출현하였던 중상주의와 류사한 점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를 서유럽나라들의 중상주의와 같은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부르쥬아경제사상발전이 중상주의단계를 거친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우선 상업자본의 리익을 전면내세우고 상업전쟁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한 서유럽의 중상주의적견해와는 달리 상업과 상인에 대한 봉건적구속을 제거하고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내 여러 지방사이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할것을 주장한것이였다.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는 또한 유통을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하

면서 생산을 무시하고 류통부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서유럽의 중상주의와는 달리 상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생산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주장한것이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상업의 의의와 역할을 유민익국에서 찾으면서 물화의 자유로운 류통과 교역을 통하여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조장시키며 백성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류통에 생산을 복종시킨것이 아니라 류통을 생산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는 상업발전에 대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적극 찾아내고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실학사상, 상업억제정책